

간섭권한과 패션감각이 남자친구의 패션스타일 통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Legitimacy and Fashionability on Females' Control over their Boyfriends' Fashion Style

성영신* · 강정석**†

Youngshin Sung* · Jungsuk Kang**†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eople tend to perceive their loved others (e.g., children, spouse, romantic partner) as their extended selves and then control over the loved others' fashion style corresponding to their self-concept. The study conceptually suggested that people's perceptions on legitimacy to interfere the others and their own fashionability would separately or interactively influence their control over the loved others' fashion style. To investigate the suggestions, an experiment with female participants in their 20's was conducted by using a scenario. The results indicated that participants' perception of legitimacy to interfere their boyfriends or their own fashionability did not have a separate effect on control over their boyfriends' fashion style. However, the legitimacy and the fashionability did have an interactive effect on the control. In particular, for high legitimacy group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ontrol between low and high fashionability groups. For low legitimacy groups, the control was stronger in high fashionability group than in low fashionability group.

Key Words: Fashion, Interpersonal Control, Legitimacy, Fashionability, Romantic Relationship, Extended Self

요약

사람들은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중요 타인(예. 자녀, 배우자, 연인)을 또 다른 자기(extended self)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기 개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들의 패션 스타일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개념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이 지각한 간섭권한 정도와 패션감각 수준이 중요 타인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독립적 또는 상호작용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애 중인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20대 여성 실험 참가자가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와 패션감각 수준은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간섭권한 정도와 패션감각 수준의 지각은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상호작용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각한 간섭권한이 높은 경우는 패션감각 수준의 차이에 따른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차이가 없는 반면 지각한 간섭권한이 낮은 경우는 패션감각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패션, 대인 관계에서의 통제, 간섭권한, 패션감각, 연인관계, 확장된 자기

※ 본 논문은 2014년 ACR 컨퍼런스에 제출한 포스터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 교신저자: 강정석(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E-mail: jungsuk.kang1@gmail.com

TEL: 063-270-2946

FAX: 063-270-2933

1. 서론

사람들은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중요 타인(예. 자녀,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배우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같은 연인)을 또 하나의 자기(self)라고 확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Aron & Aron, 1996). 또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기가 확장된 대상인 중요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또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심리적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Skinner, 1996; Stets, 1995).

패션 스타일은 자기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Keller, 1993) 확장된 자기(extended self)에 해당되는 중요 타인을 통제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는 타인의 패션 스타일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어린 자녀의 옷을 챙겨 입히는 경우나 젊은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 옷을 코디해주는 경우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현상적으로 중요 타인에 대한 패션 스타일의 통제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기저의 심리적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중요 타인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통제 행동이 발생하는지(심리적 기제)에 관한 개념적 연구 프레임을 개발하고 (2) 개발된 프레임을 기반으로 중요 타인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패션 관여도가 높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통제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인지적 요소)과 느낌(정서적 요소)을 포괄하는 개념적 표상인 자기 개념을 가진다(Sirgy, 1982; Wang & Chaudhary, 2006). 또한 사람들

은 이와 같은 자기 개념을 타인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Sirgy, 1982; Wang & Chaudhary, 2006; Stets, 1995). 소비 중심의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특정 브랜드(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와 강하게 연합된 애플)나 특정 제품군(예. 테블릿 PC)이나 특정 제품(예. iPad Mini)을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자기 개념(예. ‘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다’)의 표현 동기를 충족시키려고 한다(Sirgy, 1982; Belk, 1988).

다양한 소비 행동 중 특정 패션 아이템(예. 팔찌, 귀걸이)이나 특정 디자인의 패션 아이템의 착용을 통해 남에게 드러나는 자신의 패션 스타일은 자기 개념의 주요 표현 수단 중 하나이다(Sontag & Lee, 2004; Adomaitis & Johnson, 2005; Keller, 1993). 특히, 패션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20대 여성의 경우,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통해서 자신의 자기 개념을 표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Park & Park, 2012). 이들은 자신의 자기 개념에 적합한 패션 스타일에 맞는 패션 아이템을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찾아 구입하고 이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자기 표현의 동기를 충족시킨다(Cho et al., 2010). 이와 같은 과정(패션 아이템의 탐색, 구입 그리고 착용의 과정)은 20대 여성이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통제하는 행동에 해당한다(Skinner, 1996).

한편 자기 개념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기 개념을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예. 연인, 배우자, 자녀)에게 확장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이다(Aron & Aron, 1996).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기 개념의 확장은 그 사람(확장된 자기)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간섭 또는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Stets, 1995). 따라서 연애 중인 20대 여성은 남자친구가 20대 여성 자신의 자기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패션 스타일을 유지하거나 지향하는 경우,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언어적(예. 싫은 소리) 또는 비언어적으로(예. 싫은 표정 짓기, 함께 쇼핑하기) 간섭하고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연애 중인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는 행동을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통제 행동은 연인

사이의 상호작용 행동이다(Stets, 1995; Dunbar, 2015). 연인간의 상호작용 행동은 호혜성과 보완성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한다. 호혜성의 원칙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남자친구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은 통제를 받을 남자친구가 20대 여성의 통제 행동을 수용할 때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Karos, Howe 그리고 Aquan-Assee (200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대 여성이 자신의 자기 개념에 부합하도록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통제하는데 당위성을 제공하는 호혜성은 20대 여성 본인 스스로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legitimacy)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20대 여성이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는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대 여성의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는 2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요구하는 것에 자신이 부응해주는 대신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남자친구를 간섭하고 통제해도 된다고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Indvik & Fitzpatrick, 1986). Indvik와 Fitzpatrick(1986)는 양자 관계에서 간섭권한 지각 정도가 통제 행동에 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의하면, 20대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를 크게 지각할수록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더 많이 간섭하고 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완성의 원칙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남자친구 패션 스타일에 대한 통제 행동은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Karos 등(2007)의 연구 결과는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당위성을 제공하는 보완성은 20대 여성이 스스로 지각한 자신의 패션감각(fashionability) 수준이라는 함의를 제공한다. 패션감각 수준의 지각은 양자 관계에서 한 쪽이 다른 쪽보다 패션 스타일과 관련된 지식, 정보, 경험 등의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전문성에 해당되며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독립변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대 여성이 지각한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은 최신 유행 패션과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에 대한 인지적(예. 지식), 정서적(예. 관심) 그리고 행동적(예. 구입, 착용) 수용 정도로 정의한다(Schrank & Gilmore, 1973; Workman & Studak, 2007;

Goldsmith & Stith, 2011).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에 의하면 패션감각 수준은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존 패션 심리 연구에서 자주 논의된 패션 의견 주도성(fashion opinion leadership)과 유사하다. 또한 행동적 수용 측면에서 보면 기존 패션 심리 연구의 패션 혁신성(fashion innovativeness)을 포괄하고 있다. Clark와 Goldsmith (2006)는 대인 관계에서 최신 유행 패션 스타일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수용 정도인 패션감각 수준과 타인의 패션 스타일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경향성은 서로 정적인(positive) 관계임을 제안한다. 이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20대 여성이 지각한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이 높을수록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 1과 연구 가설 2를 설정할 수 있다.

연구 가설 1. 20대 여성이 지각한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는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 20대 여성이 지각한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은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로 제시한 바와 같이 연애 중인 20대 여성의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와 본인의 패션감각 수준에 대한 지각은 독립적으로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통제 행동에 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aros 등(2007)은 대인 관계에서 양자 간의 지각된 호혜성과 보완성이 함께 양자 간의 상호작용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호혜성)와 본인의 패션감각 수준(보완성)에 대한 지각이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통제 행동에 상호작용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독립변인 중 어떤 변인이 종속변인인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통제 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는 두 독립변인간의 어떤 조절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연구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20대 여성의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와 본인의 패션감각 수준에 대한 지각이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20대 여성이 지각한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와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은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상호작용 효과를 미칠 것인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20대 여성이 지각한 간섭권한 정도와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이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프레임틀을 도식적으로 제안하면 Figure 1과 같다. 연구 프레임틀에서 연구 가설은 RH (research hypothesis)로, 연구 문제는 RQ (research question)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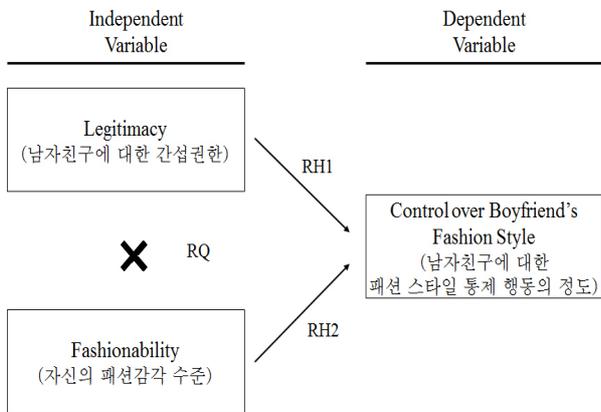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frame

한편 기질적으로 타인에게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강한 20대 여성은 자신이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나 본인의 패션감각 수준과 관계없이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Skinner, 1996). 본 연구는 대인 관계에서 타인에게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질적인 욕구를 타인 주도 욕구라고 정의하고(Steers & Braunstein, 1976) 본 연구에서 각 개별 실험 참가자의 타인 주도 욕구 수준을 공분산(covariate)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만약 20대 여성이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 보다 남자친

구의 패션감각 수준이 높다고 지각하면,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간섭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Karos et al., 2007). 즉, 20대 여성이 지각한 남자친구의 패션감각 수준에 따라서 20대 여성이 지각한 본인의 패션감각 수준이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절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 20대 여성이 지각한 남자친구의 패션감각 수준을 공분산(covariate)으로 측정하였다. 공분산에 해당되는 20대 여성의 타인 주도 욕구 수준과 남자친구의 패션감각 지각 수준을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조건에서 앞서 제시한 연구 가설과 연구 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실험 참가자

현재 남자친구와 연애 중인 총 25명의 20대 여성이 지정된 실험실에 와서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2.44세(SD = 2.02)이며 현재 남자친구와의 평균 연애 기간은 22.32개월(SD = 16.48)이었다.

3.2. 실험용 시나리오와 자극물 개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통제하는 가상의 그러나 있을 법한 실험용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 총 5명의 20대 여성 대학원생이 총 3회에 걸쳐서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F.G.I.에서 참석자들은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통제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남자친구와 함께 봄맞이 쇼핑을 하기 전 미리 남자친구 소유의 옷이나 신발 등을 둘러본 후 쇼핑을 함께 가는 상황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F.G.I.를 통해서, 20대 여성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20대와 30대 남성이 자주 사용하는 10개의 세부 패션 제품 범주(예, 셔츠, 티셔츠, 신발, 백팩)를 선별하였다. 마지막 F.G.I.에서 참석자들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인터넷 검색을 함께

하면서 각 세부 패션 제품 범주별로 총 7개의 패션 아이템 사진(예. 서로 다른 7종류의 셔츠 사진)을 수집하였다. 이때 20대 여성 실험 참가자의 남자친구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F.G.I. 참석자들은 20대 여성이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디자인이나 스타일의 패션 아이템 사진을 취합하였다. 본 실험의 실험 참가자에 대한 시나리오 상황 기술문(함께 쇼핑을 가기 전 남자친구 소유의 패션 아이템을 둘러보는 상황) 제시, 취합된 총 70장(10개 세부 패션 제품 범주 × 7개 패션 아이템 사진)의 패션 아이템 사진 제시 그리고 각 패션 아이템별 남자친구에 대한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정도 측정(3.3. 실험 절차와 3.4. 측정 변인 섹션 참조)은 Psychology Software Tools사의 E-Prime 2.0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루어졌다.

3.3. 실험 절차

실험이 시작되면 각 실험 참가자는 설문지로 제시된 연구 목적(‘연애 중인 여성들의 소비 심리 연구’)을 읽었다. 연구 목적을 읽은 후 설문지의 지시에 따라서 실험 참가자들은 가장 최근에 현재의 남자친구와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일과 가장 최근에 현재의 남자친구와 싸웠던 일이 무엇인지를 각각 3개씩 적었다. 이와 같은 개방형 질문은 실험 참가자로 하여금 실험 과정에서 현재의 남자친구에 대한 기억을 쉽게 떠올리게 하고 가상의 실험용 시나리오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후 실험 참가자는 해당 설문지에 포함된 (1) ‘현재의 남자친구와의 연애 기간’(1개의 개방형 문항), (2) ‘자신이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의 정도’(5문항) 그리고 (3)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12문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마친 실험 참가자는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통제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전반적 설명문을 읽었다. 가상의 시나리오 설명문은 컴퓨터 모니터로 제시되었다. 설명문의 내용은 실험 참가자의 남자친구가 자신이 소유한 셔츠, 티셔츠, 바지, 신발, 백팩 등의 패션 아이템을 실험 참가자에게 하나씩 보여주면서 각 스타일이 괜찮은지를 실험 참가자에게 물어보는 상황을 기술한 것이었

다. 실험 참가자의 실험 참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 설명문에는 실험 후 남자친구가 보여주지 않은 패션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묻는 간단한 3개의 퀴즈에 답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전반적 설명문을 읽은 후, 실험 참가자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각 세부 패션 제품 범주(예. 셔츠)별 총 7개 패션 아이템(예. 7개의 상이한 디자인의 셔츠들)의 사진과 개별 설명문(예. ‘당신은 남자친구가 소유한 모든 셔츠를 한 번 둘러 보았습니다. 당신이 보신 셔츠는 아래의 사진들과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셔츠를 남자친구에게 입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의 남자친구가 셔츠를 하나씩 보여주려고 합니다. 남자친구의 셔츠를 하나씩 자세히 보기 위해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세요’)을 읽었다. 실험 참가자는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원하는 시간만큼 각 세부 패션 범주의 총 7개 패션 아이템 사진(예. 다른 디자인의 7개 셔츠 사진)을 하나씩 볼 수 있었다. 실험 참가자는 컴퓨터 모니터로 제시된 각 패션 아이템 사진을 보고 남자친구에게 입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면 컴퓨터 키보드의 Q 키를 누르고, 입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면 P 키를 눌렀다. 실험 참가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Q 키 바로 위에 ‘입지 말라고 이야기한다’와 P 키 바로 위에 ‘입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추가 설명글을 포스트 잇을 이용해서 키보드에 붙여두었다. (4) 실험 참가자가 Q 키를 누른 횟수는 ‘실험 참가자의 남자친구에 대한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실험 참가자가 Q 키를 누른 횟수(최소 0회에서 최대 70회까지)는 E-Prime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저장되었다.

E-Prime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남자친구에 대한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정도를 측정할 이후 실험 참가자는 (5) ‘실험 참가자의 실험 참여 몰입도’를 묻는 간단한 퀴즈(3문항), (6) 실험 참가자의 ‘타인 주도 욕구 수준’(5문항) 그리고 (7)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남자친구의 패션감각 수준’(12문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이상의 실험 절차를 도식적으로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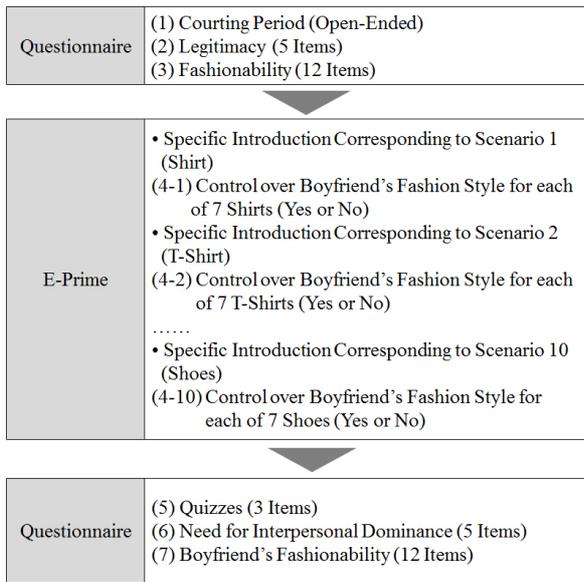


Figure 2. Experimental procedure

3.4. 측정 변인

실험 절차에서 논의한 변인의 측정 내용과 개발 근거, 타당도 분석 결과 그리고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타당도 분석이 필요한 변인을 대상으로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증적 요인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때 요인 수를 1개로 고정하고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 역시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Ch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논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험 절차를 기술할 때 특정 변인에 사용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1) 현재의 남자친구와의 연애 기간은 1개의 개방형 질문(____년 ____개월)으로 알아보았다. (2)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는 대인관계에서의 지각한 간섭권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Indvik과 Fitzpatrick(1986)이 사용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개발한 리커트 형식의 7점 척도 5 문항으로 측정하였다($\alpha=.76$). (3)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은 Schrank와 Gilmore (1973), Workman과 Studak(2007) 그리고 Goldsmith와 Stith (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개발한 리커트 형식의 7점 척도 12문항으로 알아보았다($\alpha=.93$). 간섭권한 정도와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이라는 두 독립변인의 세부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1에 기술하였다.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for two independent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α
Legitimacy	• My boyfriend should consult me before making a change in his life.	.69	2.55	51.09%	.76
	• My boyfriend does not take in my advice willingly. (R)	.73			
	• My boyfriend is uncomfortable when I make demands on him. (R)	.64			
	• I take it for granted that I should consult my boyfriend before making a change in my life.	.75			
	• I am uncomfortable when my boyfriend makes demands on me. (R)	.75			
Fashionability	• Others consult me for information about the latest fashion trends.	.83	7.13	59.42%	.93
	• I believe I am a very good source of advice about fashion.	.72			
	• My friends don't think of me as a knowledgeable source of information about fashion trends. (R)	.84			
	• People bypass me as a source of advice about fashion. (R)	.80			
	• I am more fashionable than others.	.81			
	• My friends ask for my opinions about new styles.	.90			
	• People compliment me on my fashion styles.	.76			
	• I am more likely than most of my friends to be asked for advice about fashion.	.79			
	• When it comes to fashion, I am among the least likely of my friends to be thought of as an advice-giver.	.36			
	• I am more likely to keep up with the latest fashion than my friends.	.82			
	• I am more knowledgeable about fashion trends than others.	.76			
	• I am never first to be asked for an opinion about a current style. (R)	.73			

Note. (R) denotes reverse scoring.

(4) 실험 참가자의 남자친구에 대한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정도를 총 70개의 패션 아이템 사진에 대해서 실험 참가자가 Q키를 누른 횟수의 총합으로 산출하였다(범위: 0점 ~ 70점). 이 변인은 종속변인에 해당한다. (5) 실험 참가자의 실험 참여 몰입도는 3개의 퀴즈(예. ‘아래의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해주세요. 앞서 본 가상의 실험 상황에서 당신은 남자친구의 벨트를 보았다.’)의 정답 여부로 평가하였다. (6) 실험 참가자의 타인 주도 욕구 수준은 Steers와 Braunstein (1976)의 연구에서 사용한 리커트 형식의 7점 척도 5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려는 편이다,’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지시하곤 한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으로 알아보았다($\alpha=.74$). 확증적 요인 분석 결과, 단일 요인 구조의 고유값은 2.56, 설명량은 51.24%인 것으로 나타났다(각 문항의 요인부하량=.41~.91). 마지막으로 (7)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남자친구의 패션감각 수준은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을 측정하는 리커트 형식의 7점 척도 12문항의 주어를 나에서 나의 남자친구로 바꾸어 측정하였다($\alpha=.97$). 확증적 요인 분석 결과, 단일 요인 구조의 고유값은 9.40, 설명량은 78.31%인 것으로 나타났다(각 문항의 요인부하량=.79~.95).

4. 연구결과

4.1. 통계분석을 위한 사전 점검

실험 참가자의 몰입도 점검 결과, 모든 실험 참가자는 실험 몰입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3개의 퀴

즈에 대해서 정답을 맞췄다. 또한 연애 기간이 2개의 독립변인(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의 정도와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이 종속변인(남자친구에 대한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혼입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혼입 효과 점검 결과, 연애 기간은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의 정도($r=.18$, 양방검증, $p>.10$),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r=.02$, 양방검증, $p>.10$)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정도($r= -.10$, 양방검증, $p>.10$)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통계분석 결과

연구 가설과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Median=5.00)와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Median=3.83)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간섭권한 고지각 집단($n=12$)과 저지각 집단($n=13$), 패션감각 고지각 집단($n=14$)과 저지각 집단($n=11$)으로 25명의 실험 참가자를 분류하였다. 이후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분산분석을 통해서 2(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 고지각 vs. 저지각) × 2(자신의 패션감각 수준: 고지각 vs. 저지각) 실험 참가자간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잠재 혼입 변인인 실험 참가자의 타인 주도 욕구 수준과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남자친구의 패션감각 수준은 공분산으로 통제하였다.

공분산분석 결과(Table 2 참조), 실험 참가자의 타

Table 2. ANCOVA Results: Effects of legitimacy and fashionability on control over boyfriend's fashion style

Source	df	F	Partial η^2
Covariate 1. Need for interpersonal dominance	1	.43	.02
Covariate 2. Boyfriend's fashionability	1	.28	.01
Main effect 1. Legitimacy	1	.43	.02
Main effect 2. Fashionability	1	2.27	.11
Interactive effect. Legitimacy × Fashionability	1	5.43*	.22
Error	19		

* $p < .05$, ** $p < .01$

인 주도 욕구 수준($F(1, 19)=.43, p>.10, \text{partial } \eta^2=.02$)과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남자친구의 패션감각 수준($F(1, 19)=.28, p>.10, \text{partial } \eta^2=.01$)은 실험 참가자의 남자친구에 대한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의 고저($F(1, 19) =.43, p>.10, \text{partial } \eta^2=.02$)와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의 고저($F(1, 19)=2.27, p>.10, \text{partial } \eta^2=.11$) 역시 실험 참가자의 남자친구에 대한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가설 1과 2는 지지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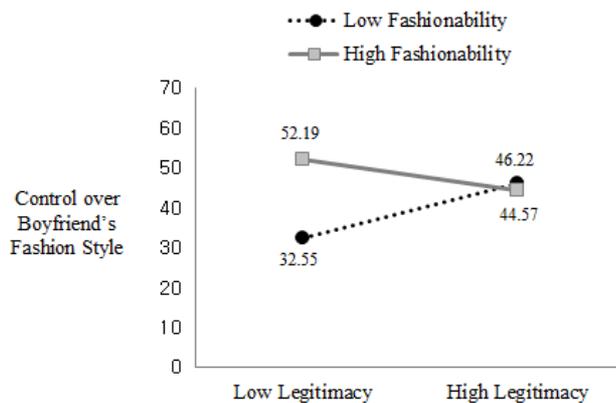


Figure 3. Interactive effect on control over boyfriend's fashion style

그러나 실험 참가자 자신이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의 고저와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의 고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정도에 상호작용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 문제) ($F(1, 19)=5.43, p=.03, \text{partial } \eta^2=.22$) (Figure 3 참조). 보다 세부적으로 상호작용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한 Boferroni 사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 참가자가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을 높게 지각하면,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을 높게 지각하면(Estimated Mean= 44.57, Standard Error=5.17) 낮게 지각하면(Estimated Mean=46.22, Standard Error=5.00) 남자친구에 대한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p>.10$). 반면 실험 참가자가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 자신의 패션감각 수

준을 높게 지각하면(Estimated Mean=52.19, Standard Error=4.10) 낮게 지각할 때(Estimated Mean=32.55, Standard Error=5.48) 보다 남자친구에 대한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8$). 이때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정도는 실험 참가자가 남자친구가 보여준 70개의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 입지 말라고 이야기한 빈도로 측정했기 때문에 그 범위는 0점~70점이었다.

5. 논의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양자 관계에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중요 타인에 대한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이 자기 개념의 확장과 자기표현 욕구 충족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이 발생하기 위해서 양자 관계에서 호혜성 지각과 보완성 지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제안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연애 중인 20대 여성이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호혜성)와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보완성)이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연애 중인 20대 여성이 지각한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와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은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20대 여성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디자인의 패션 아이템을 남자친구에게 입지 말라고 말하기)에 상호작용 효과를 일으킨다(연구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남자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통제한다. 그러나 20대 여성이 생각하기에 남자 친구에 대한 간섭권한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남자 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통제하는 행동을 적게 한다. 반면 20대 여성이 남자 친구에 대한 간섭권한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도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남자 친구의 패션 스타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이상의 결과는 패션 스타일을 통한 타인의 통제 현상 연구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서 선행 연구들은 특정 조직이 패션 스타일(예. 항공사의 유니폼, 감옥에 수용된 죄수의 복장)을 통해 구성원을 통제하는 행동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예. Adomaitis & Johnson, 2005). 반면 양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패션 스타일을 통한 타인에 대한 통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스타일을 통한 타인의 통제 행동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 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자 간의 대인 통제 행동은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Stets, 1999).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가 20대 여성의 남자친구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미치는 남자친구의 영향력을 20대 여성의 지각(남자친구에 대한 간섭권한 정도와 남자친구의 패션감각 수준 지각)으로만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남자친구가 지각한 자신의 20대 여자친구의 간섭권한 정도와 자신의 패션감각 수준을 함께 측정해서 이 변인들이 20대 여성의 남자친구 패션 스타일에 대한 통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전 남자친구에 대한 통제 행동의 결과나 효과에 대한 20대 여성의 사전 경험(Stets, 1999)이 현재의 남자친구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의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변인이 현재의 남자친구 패션 스타일 통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연인 관계를 대상으로 패션 스타일을 통한 타인에 대한 통제 행동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머니와 자녀 사이, 동성 친구 사이 등의 다양한 애정을 기반으로 한 양자 관계에서도 패션 스타일 통제를 통해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프레임(Figure 1 참조)을 다양한 관계로 확장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간섭권한 정도와 패션감각 수준을 대체할 호혜성과 보완성 관련 변인의 선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패션 스타일을 통한 타인 통제 행동

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자기개념 확장과 자기표현 동기 충족의 과정이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개념적 제안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REFERENCES

- Adomaitis, A. D. & Johnson, K. K. (2005). Casual versus formal uniforms: flight attendants' self-perceptions and perceived appraisals by oth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3(2), 88-101.
- Aron, E. N. & Aron, A. (1996). Love and expansion of the self: the state of the model. *Personal Relationships*, 3(1), 45-58.
- Belk, R. W. (1988). Possessions and the extended self.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2), 139-168.
- Cho, H., Kim, J., & Lee, J. (2010). A study of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smart clothing based on the consumer's lifestyle.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3(1), 11-20.
- Clark, R. A. & Goldsmith, R. E. (2006). Interpersonal influence and consumer innovat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0(1), 34-43.
- Dunbar, N. E. (2015). A review of theoretical approaches to interpersonal power. *Review of Communication*, 15(1), 1-18.
- Goldsmith, R. E. & Stith, M. T. (2011). The social values of fashion innovators.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9(1), 10-16.
- Indvik, J. & Fitzpatrick, M. A. (1986). Perceptions of inclusion, affiliation, and control in f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cation Quarterly*, 34(1), 1-13.
- Karos, L. K., Howe, N., & Aquan-Assee, J. (2007). Reciprocal and complementary sibling interactions, relationship quality and socio-emotional problem solving.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6), 577-596.
- Keller, K. L. (1993).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managing customer-based brand equity. *Journal of Marketing*, 57(1), 1-22.
- Park, H. & Park, S. (2012). The effects of conspicuous

- consumption tendency on fashion involvement by age group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4(1), 56-63.
- Schrank, H. L. & Gilmore, D. L. (1973). Correlates of fashion leadership: implications for fashion process theory. *The Sociological Quarterly*, 14(4), 534-543.
- Sirgy, M. J. (1982). Self-concept in consumer behavior: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3), 287-300.
- Skinner, E. A. (1996). A guide to constructs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549.
- Sontag, M. S. & Lee, J. (2004).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scal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2(4), 161-177.
- Steers, R. M. & Braunstein, D. N. (1976). A behaviorally-based measure of manifest needs in work setting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51-266.
- Stets, J. E. (1995). Job autonomy and control over one's spouse: a compensatory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3), 244-258.
- Wang, Q. & Chaudhary, N. (2006). The self. In: K. Pawlki & G. d'Ydewalle (Eds.), *Psychological Concepts: An International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Psychology Press, 325-358.
- Workman, J. E. & Studak, C. M. (2007). Relationships among fashion consumer groups, locus of control, boredom proneness, boredom coping and intrinsic enjoy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1(1), 66-75.

원고접수: 2015.11.02

수정접수: 2015.12.02

게재확정: 2015.12.04